

2025년 상반기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우수 사례 공유 및 향후 발전 방안 워크숍 성료



지난 4월 10일(목) 대구에서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워크숍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전 직원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센터,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약 15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며, 직업병 예방을 위한 협업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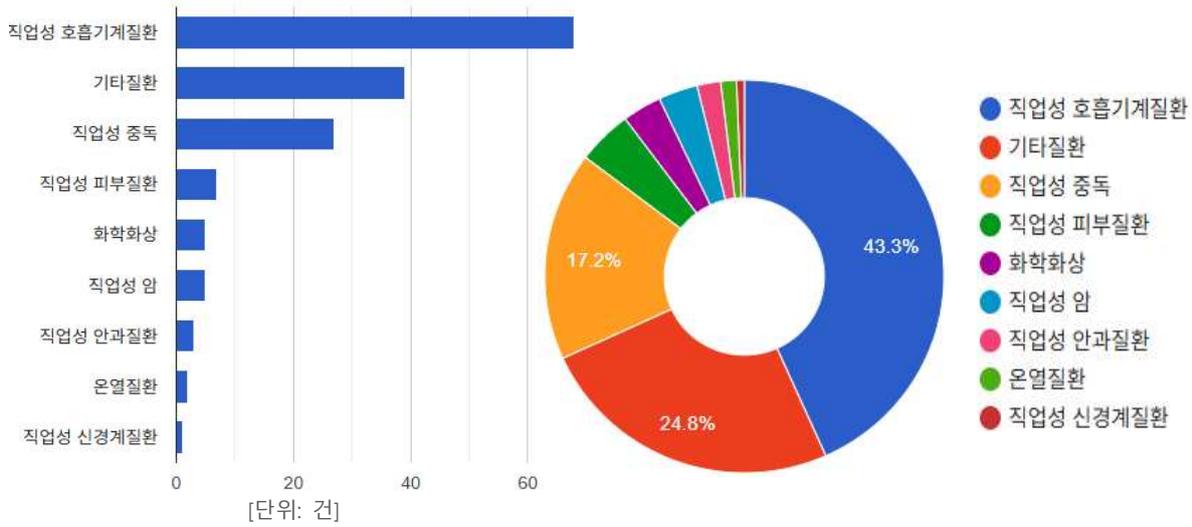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국 각지의 직업병 안심센터가 현장 중심의 주요 발굴 사례를 발표하며, 실제 조사·분석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전충청센터 최선행 팀장은 브로모아닐린에 의한 신규물질 발굴 사례를, 인천센터 김환철 센터장은 인듐 노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대구경북센터 정인성 센터장은 아르신 중독 사고 대응 과정을, 광주전라제주 센터 이철갑 센터장은 수산화리튬과 관련된 2차전지산업 이슈를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센터 황정호 사무국장은 톨루엔과 벤젠 등 유해물질에 대한 협업 발굴 사례를 공유하며,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책과 제도, 연구 기반의 방향성을 다루었습니다. 박종일 과장(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은 산업보건 정책 속에서 직업병 안심센터의 역할을 조명하였고, 이나루 실장(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은 세척제 중독 사례를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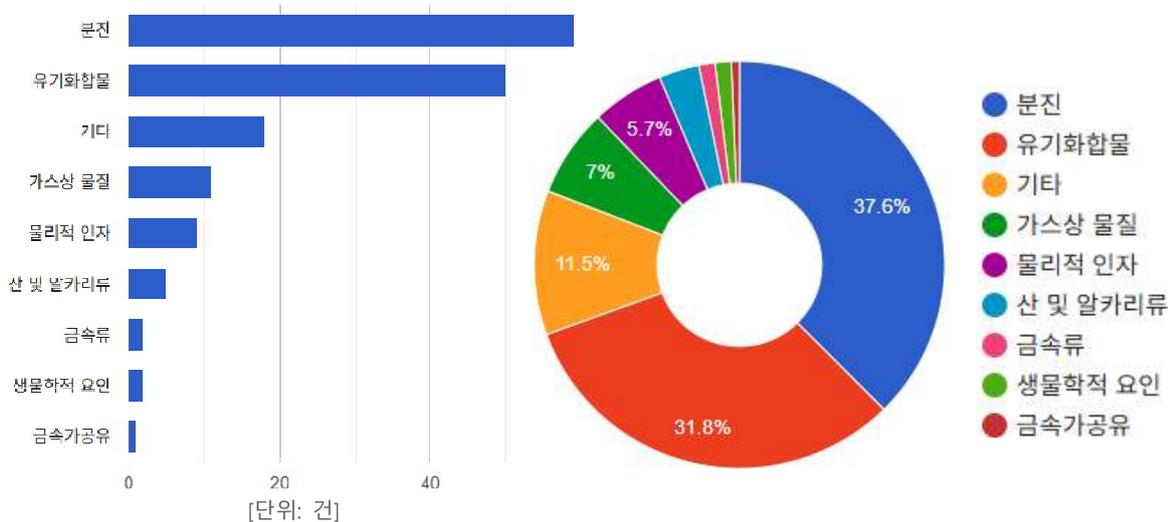
워크숍의 마지막은 발전 방안에 대한 종합 토의와 질의 응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병 안심센터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체계적인 대응 네트워크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정보와 경험을 폭넓게 공유하는 동시에, 향후 협업과 대응 체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 강화와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직업병 사례 통계 -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 2025년 03월 (2025.03.01.~2025.03.31.)

<질환별>



<유해요인별>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중부직업병안심센터에 총 157건의 직업병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질환별로 분류하면 직업성 호흡기계질환 68건, 기타질환 39건, 직업성 중독 27건, 직업성 피부질환 7건, 화학화상 5건, 직업성 암 5건, 직업성 안과질환 3건, 온열질환 2건, 직업성 신경계질환 1건 등이었습니다. 추정 유해요인별로 분류하면 분진 59건, 유기화합물 50건, 기타 18건, 가스상 물질 11건, 물리적 인자 9건, 산 및 알카리류 5건, 금속류 2건, 생물학적 요인 2건, 금속가공유 1건 등이었습니다.

직업병 사례

“유해물질(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등) 장기 노출로 인한 폐선암”

60대 남성으로, 4기 폐선암으로 진단, EGFR-TKI 표적항암제 치료 중인 분이다. 1980년대부터 약 13년간은 유리 제조업체에서, 이후 약 17년간은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였다. 유리 제조업체에서 종사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된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일부 있다. 또한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황산, 불산 등 강산 증기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정형 유리규산(Crystalline silica)은 분진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유입될 수 있다. 장기간 반복 노출 시 폐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간질성 폐질환 등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결정형 유리규산을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황산, 불산과 같은 강산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자극 및 손상을 일으키며, 인간의 폐암에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위험요인이다.

이처럼 유해 화학물질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수십 년간 근무해온 경력은 현재의 폐선암 발생과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리 제조 및 화학물질 취급 공정에서 보호구 착용이나 국소 배기장치 등 산업안전 관리가 미흡하면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과거 근무 당시 산업보건 수준과 관리 실태를 감안하면, 노출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본 사례는 결정형 유리규산 및 강산 등 폐암 유발 물질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된 근무 경력을 고려했을 때, 현재 진단된 폐선암과 직업적 노출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직업성 암의 예방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분진 및 증기 노출을 줄이기 위한 공정 개선과 국소 배기장치 설치가 필수적이다.
-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 착용 교육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유해물질에 노출된 고위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한다.

본 사례는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로, 직업성 암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킨다.

그 외 직업병 사례들

직업성 중독

- ◆ 식품회사 연구원의 황산가스로 인한 중독
- ◆ 연구원의 기타 산업용 독성제제에 직업적 노출
- ◆ 농업 종사자의 화재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직업성 신경질환

- ◆ 실험실 종사자의 에틸벤젠, 크실렌 등 다양한 유기용제로 인한 다발성경화증

직업성 피부질환

- ◆ 식품 제조업 근로자의 안전화 압박에 의한 티눈



직업을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직업병엔 도너리(Don't worry)가 같이 합니다.



직업병 안심센터

대상

업무와 관련해 불편한 증상, 질환을 경험한 분



대표적인 직업성 질병

급성중독

(화학물질 노출 후 발생한 이상 증상 또는 질식, 열사병 등)

호흡기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폐질환, 천식 등)

신경계질환

(말초신경병증, 파킨슨증후군 등)

피부질환

(접촉성 피부염, 백반증 등)

간질환

(독성간염 등)

직업성 암

(폐암, 혈액암, 비인두암, 방광암, 신장암 등)

무엇을 도와주나요?

- 직업성질환 진단, 원인파악
- 직업병 예방 및 환경개선 지원
- 산재요양 필요여부 상담 등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초기 진료비 일부 지원
- 이후 직업성질환 진단 비용 일부 지원 (단, 외상성사고, 근골격계질환, 소음성난청 등은 제외)

문의 ☎ 1588-6798 (전국대표번호)

인천 직업병 안심센터
인하대병원
☎ 032)890-0843

강원 직업병 안심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033)741-0342

경기남부 직업병 안심센터
아주대학교병원
031)219-5645

경기북부 직업병 안심센터
한양대구리병원
☎ 031)560-2725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
www.kodsc.org